

(21.6.7 월)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두 개의 시선(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담은 친미 성향이나 친중 성향 사람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역대 정권 중에서 친중 반미 성향이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그랬다.

한미정상은 안보와 경제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로 그간 흔들렸던 동맹관계의 회복을 넘어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국은 경제력을 등에 업고 미국의 안보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반도체,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제조업을 키우도록 투자하는 데도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애고 우주로 나가는 데 협력하며, 자국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파트너가 되기로 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탈원전, 탄소중립’을 외쳤던 문 정권 인사들은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고, 원전은 탄소중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회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태도를 바꿨는지 한미 정상회담을 최고의 정상회담이라고 자평하는 문 대통령에 환호했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말을 아끼고 있다.

팽창주의와 공격적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가는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최소한 중립을 지켜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이 자기 나라라고 우기는 대만문제와 미국이 일본·인도·호주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문제에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한국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

친중 성향의 사람은 무역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 점을 이유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거론한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수출과 수입을 다변화하고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

중국이 대국이라며 알아서 기는 저자세는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중화주의를 믿고 중국을 우러러보는 모화주의자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실패한 외교로 돌리고 싶어 할 것이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에 고무돼 있다.

외교 전문가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제조업체들을 일일이 거명하고 일으켜 세우면서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 했다.

글로벌(Global 지구의, 세계적인)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한국이 동참함으로써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 투자할 자본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제조업의 공동화를 경계해야 한다.

제조업의 미국행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는 더 악화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위기에서 버팀목마저 사라지게 된다.

미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 친미 성향 인사들은 이런 위험을 간과하기 쉽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첨단 기술을 이전받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을 따라잡고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는 데 미국을 활용하는 나름의 글로벌 전략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미국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보는 두 개의 시각이 갈등을 빚고 있다.

친미와 친중 시각은 보수와 진보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익 앞에서 보수와 진보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오락가락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든,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어야 한다.

친미 성향의 보수와 친중 성향의 진보 모두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친미와 친중 또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 한국은 스스로 신뢰를 잃게 되고 약점을 만들게 될 뿐이다.

(21.6.8 화)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할까? (조선일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여름. 꿈과 희망으로 부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했던 시절.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동물 농장'이라는 책을 소개한다.

동화책 같은 이야기였다.

소, 돼지, 말, 닭, 양이 살고 있는 어느 농장.

주인의 무능력과 포악함 때문에 동물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끝없는 노동과 굶주림. 계란은 빼앗기고 우유는 송아지 뉘이 아닌 주인의 술을 사는 데 팔려버린다.

영특한 돼지들은 제안한다.

주인을 몰아내고 동물들이 농장을 차지하자고!

반란은 성공하고 혁명을 이끈 돼지 '스노볼'은 선포한다.

앞으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돼지 '나폴레옹'의 계획은 달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돼지들과 순진한 양들을 그는 선동하기 시작한다.

사실 스노볼은 인간 편이고 농장을 옛 주인에게 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스노볼을 내쫓고 농장 주인이 된 나폴레옹과 그의 친척 돼지들.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다 지쳐 쓰러진 말을 도살장에 팔아버린 돼지들은 이제 우유가 섞인 사료를 먹기 시작한다.

닭들의 계란은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비싼 위스키를 사는 데 팔리고, 농장에는 새로운 구호가 등장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물론 무능한 주인은 러시아 차르였고, 스노볼은 트로츠키, 그리고 나폴레옹은 스탈린이다.

평생 사회주의자였던 조지 오웰은 스탈린의 독재를 보며 평등과 정의라는 이름 아래 최악의 독재와 불평등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사회주의 社會主義, 소셜리즘 Socialism 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러시아 혁명만은 아니겠다.

모두가 평등한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며 현대 문명과 기술을 금지했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하지만 막상 탈레반 리더들은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할리우드 영화를 즐겼다고 한다.

평등과 정의의 이름 아래 시작된 대부분 혁명은 결국 더 심한 독재와 불평등으로 끝난다는 역설적이고 슬픈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21.6.9 수) 정은경 본부장을 쉬게 하려면(경향신문)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건강해 보였다.

그 뒤 정 본부장의 모습은 점차 초췌해졌는데, 외모만 본다면 요 몇 달 사이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 본부장의 일정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아침 7시, 새벽 사이에 발생했던 코로나19 소식을 보고받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해 8시 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11시에는 확진자 관련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한다.

이런 일정은 밤늦게까지 계속되는데,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종합보고를 받고 전략 수립을 세우는 게 끝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주 52시간이 의무화된 시대에 하루 14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하는 분이 있다니, 아무리 비상시국이라 해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

원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질본)처럼 국민 건강을 다루는 부처에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구호가 상식이었다.

열심히 해도 티가 잘 나지 않지만, 한 번 실수하면 그 피해가 종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지만, 방역당국은 이에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1번 환자가 중동에서 감염된 채 귀국하는 것을 방치했다.

그 뒤 메르스 종식 선언이 있기까지 질본은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이미 소를 잃어버린 뒤였다.

징계가 따른 것은 당연한 수순.

당시 본부장이던 양병국은 해임, 긴급상황센터장이던 정은경과 권준욱 정책관은 정직 처분을 받는다.

그 뒤 양병국은 정직, 정은경은 감봉으로 징계가 완화되지만, 이에 상처받은 이들은 하나둘씩 질본을 떠난다.

하지만 정은경은 질본에 남았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부장으로 승진한다.

그로부터 3년 뒤 닥친 코로나19의 유행은 그가 질본에 남아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확인케 했다.

이 바닥이 잘해야 본전인 건 맞지만, 밤낮없이 일하는 정은경의 모습은 전 국민을 감동시켰고, 미국과 유럽의 방역 실패가 겹치면서 그는 일약 국민 영웅이 된다.

그가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급 10%를 반납하기로 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은 그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데 정은경은 어떻게 징계를 받고도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을까?

고시 출신 공무원이 많은 질본에서 그가 몇 안되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감염병에 대처하는 게 가장 큰 임무라면,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는 역시 의사이니 말이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부분부장을 맡아 정은경을 돕는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역시 의사 출신.

그러나 아쉽게도 일본에 근무하는 의사는 몇 명 안되며, 특히 감염병 대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은 2명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허가를 책임지는 기관인 식약처도 마찬가지다.

올해 식약처는 신기술 의료제품을 심사할 임상 의사 8명을 모집했는데, 응모한 이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수백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달리, 우리나라의 일본과 식약처는 도대체 왜 의사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일까?

문제는 낮은 보수이다.

일본이 공고한 역학조사관의 연봉 하한액은 6100만원 수준.

일반인 기준으로는 많은 액수지만 이 연봉에 지원할 의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지난 3월 역학조사관에 지원해 화제가 된 김연주 전문의의 말을 들어보자.

“동료 의사에 비하면 낮은 보수인 것은 이미 알고 있다.

역학조사관의 보수체계가 개선된다면 더 많은 동료 의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가정해 보자.

일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들이 조금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정 본부장이 브리핑부터 대책 마련까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하루 3~4시간 수면이라는 살인적인 스케줄에서도 해방시켜 줄 수 있었으리라.

물론 이들 기관에서 의사를 뽑으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돼야 하지만, 그 비용이 아무리 크다 한들 방역 실패로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 할지라도 흑사에는 장사가 없으며, 나이로 보아 그가 일본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

일본과 식약처에 의사를 총원하자.

날로 초췌해지는 방역 수장을 보면서 국민이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21.6.10 목) 머리에서 가슴까지(조선일보)

6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5월 27일 1차와 2차 접종자가 무려 71만1194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아스트라 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사람은 57만 5176명으로 전체의 80%가 넘는다.

그동안 AZ 백신은 화이자 백신에 비해 효율이 낮은 ‘이류’라는 등, 혈전 등 부작용이 심하니 대통령이 1호로 맞아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백신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인과 언론이 많았음에도 우리 국민은 의연히 팔을 걸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뇌에서 가슴까지”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실제로 이 거리는 성인의 경우 약 36cm밖에 안 되지만,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뜻밖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미국 생활 15년 동안 참 많이 보았다.

실컷 토론하고 어렵게 결론을 이끌어내고도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또 부지하세월 시간을 보낸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조심성은 존중하지만 솔직히 답답하다.

내가 지켜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언론마다 우리 사회의 장묘 문화를 걱정하며 조만간 전국이 무덤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경고했다.(장묘 葬墓: 장사할 장, 무덤 묘 장사를 지내고 묘를 쓰는 일)

전통이란 본디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문화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의 끈질긴 설명과 계몽 덕에 바야흐로 화장률 90% 시대를 맞았다. 지금은 화장장 부족이 고민이다.

우리 국민은 일단 머리에서 이해되면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실행한다.

물론 머리가 이해하는 과정은 치열하다.

온갖 상반된 의견이 난무하고 차분히 다양한 의견을 숙고하기보다 다짜고짜 공격부터 퍼붓는다.

합리적 비판보다 흠집 내기식 비난이 판친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런 와중에도 사실에 입각한 전문가들의 설명이 쉼 없이 이어지고 우리 국민은 끝내 옥석을 가려내어 현명하게 행동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다.

(21.6.11 금) 또 고개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랏빛은 안중에 없나(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석연휴 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방안이 확정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급되는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이 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두 번째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의 당내 경선 기간(6~8월)과 맞물리는데다 대선 주자들도 반대할 이유가 적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재원 마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1차 지원금보다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이번에도 ‘재원’이다.

지급 방식을 선별·보편으로 구분하긴 했지만 지난해 5월 1차(14조 3000억원)부터 지난 3월 4차(20조 6000억원)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모두 52조원에 이른다.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67조원의 상당 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추경 요건은 국가재정법(89조)으로 제한돼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복되면서 추경이 당연시되고, 국채 발행 등 나랏빛 증가에 무신경한 풍토가 퍼지고 있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될 만큼 가파르게 늘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GDP(국내총생산)의 60%와 -3%이하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 도입은 국회에 묶여 있다.

재난지원금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더라도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는 이번 추경으로 나라 곳간 경보음은 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여당은 추경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기 바란다.

₩보너스 읽기 500원₩ ‘꿈의 직장’ 네이버·카카오의 전근대적 ‘직장 갑질’ (한겨레)

아이티(IT :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기업 카카오가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1일 드러났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동종 업체인 네이버에서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으로 꼽히는 국내 대표적 아이티 기업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반노동적이고 전근대적인 직장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밝혀낸 노동법 위반 사항은 6건에 이른다.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가 하면 일부 직원에게는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애초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카카오의 한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 을 끄는 방식의 동료 평가에 대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일이 계기가 됐다.

이런 식의 평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본 일부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을 한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의 경우도 임원들한테서 심한 업무 압박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국내 굴지의 아이티 기업에서조차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네이버 사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다른 회사 직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남의 일 같지 않다’ 는 동병상련(東邊相憐 :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걱정할 수 있다는 말.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걱정해 줄 수 있다)의 마음일 것이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가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2.5%나 됐다. 그럼에도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신고 이후 근무조건의 악화나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 를 겪었다는 응답도 67.9%에 이르렀다.

직장 내 괴롭힘 지적이 제기되자 카카오는 티에프(TF : Task Force 특정 일을 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발하여 임시로 편성한 조직)를 꾸려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네이버도 외부기관에 의뢰해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의 ‘선의’ 에만 기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차제에 법·제도 측면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직하다.

₩보너스 읽기 500원₩ 랜섬웨어에 무방비 韓 해외법인, 송유관 사태 남일 아니다(동아일보)

한국 대기업의 해외법인 여럿이 최근 국제 해커집단들로부터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을 받아 데이터가 유출됐고, 돌려받는 대가로 금전까지 요구받았다고 한다.

지난달 한 해커집단이 미국 송유관업체를 랜섬웨어로 공격해 운영을 마비시키고 440만 달러를 뜯어낸 것과 비슷한 일이 한국 기업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몸값이라는 뜻의 랜섬(ransom)과 악성코드(malware)의 합성어인 랜섬웨어는 해커들의 주요 공격 수단이다.

기업, 정부기관 임직원의 이메일(e-mail) 등을 통해 시스템에 침투해 자료를 빼내거나, 암호를 걸어 데이터를 못 쓰게 하고 돈을 요구한다.

최근 두 달 사이에만 CJ셀렉타 브라질 법인, LG생활건강 베트남 법인, LG전자 미국 앨라배마 법인 등이 공격에 노출됐다.

해커조직의 공격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추세로 시스템의 틈새가 커지고, 가상화폐 시장 확대로 대가 챙기기도 쉬워져서다.

공격대상도 커지고 있다.

미 동부 석유류 45%를 공급하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전산시스템이 멈추자 이 지역 휘발유값은 7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고, 조지아 등4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반도체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 장치산업이 주력인 한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미 송유관 사태 배후로 지목된 러시아 못지않게 정부 차원에서 많은 해커를 키우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번에 공격받은 기업들은 “중요 자료가 유출되지 않아 몸값도 내지 않았다” 고 한다.

해커범죄 특성상 위협에 쉽게 굴복하는 대상으로 지목될 경우 지속적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미지 하락을 염려하는 기업들로선 몸값을 내고라도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기업, 기관들이 보안시스템과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이 언제, 어디서 해커 공격을 당해도 신속히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